



공포는 계속된다



올 여름 공포영화의 서막을 여는 '전설의 고향'과 황정민 주연의 '검은집', 베트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

올 여름 온몸 오싹하게 할 공포영화들

'공포 영화'의 계절이 돌아왔다. 사실, 한국 영화에서 '공포물'은 그다지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이지 못한 장르다.

경향이 자살이라고 판단한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보험 사정인인 전준호(황정민 분)가 '사이코패스(psychopath·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전설의 고향' 2007년 서막 장식

'검은집' '미' 등 6월 개봉 예정

(2006) 등이 그 전철을 밟았다. 2007년 첫 포문을 여는 작품은 TV 드라마로 익숙한 사극 공포 '전설의 고향'으로 '처녀 귀신'이 주인공이다.

'미'는 베트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포영화다. '미'는 베트남어로 '10'을 뜻하며 촘촘한 여사 이르기기도 하다.

주목! 이영화

김수미·임채무 좌충우돌 코믹 연기

'삼순이' 김선아 '걸스카우트'로 돌아왔다

'못말리는 결혼'

악연으로 만나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벌이는 좌충우돌 코믹 멜로물이다.



마음에 들지 않고, 태견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풍수지리가 박지민 역시 딸을 데려가려는 바람둥이 기백이 마뜩찮다.

사람은 아들 딸을 떼어놓기 위해 작전에 돌입하는데. '가문의 영광' 시리즈를 쓴 김연찬 작가가 시나리오를 맡았으며 그중 SES 출신인 유진의 스크린 데뷔작이다.



등 제작 과정이 순탄치 않아 결국 중도 하차했다.

김선아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나문희의 캐스팅도 확정됐다.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제일시네마